

척추디스크 무릎관절을 위한 전문 소식지

서울척병원 뉴스레터

Chukspine Hospital Newsletter

척추 치료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홈커밍데이 이모저모

개원 2주년 척병원 성장스토리

관절염 환자의 여름나기

2008
Summer
여름호

Contents

Chukspine Hospital Newsletter / 여름호

++ 2008 summer ++



03 대표원장 인사말_ 장상범 원장



04 개원 2주년 기념 특집

_ 개원 2주년 행사 및 홈커밍데이 이모저모

_ 개원 2주년 척병원 성장 스토리

_ 개원 2주년 축하 (성북 소방서장)



11 여름철 관절 건강 관리_ 안준환 원장

12 척추건강칼럼_ 홍준기 원장

14 나의 척병원 생활_ 김주현 과장

15 외래일지_ 정은경 간호사

16 성공치료사례

18 완쾌 인터뷰

20 보도자료

22 척병원 가족의 여름인사

23 광고



척추 치료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여름에는 척추 관절 환자의 병원 방문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척병원에는 꾸준히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바, 척추 질환으로 인해 허리 다리가 아팠으나 일 때문에 치료를 못했던 분들이 방학 및 휴가를 이용하여 참아왔던 고통을 치료하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척병원 내원 환자분 중 입소문 및 소개로 내원하시는 분의 빈도가 꾸준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본원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방문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척병원을 소개받은 이유로서 크게 두가지 요인이 비슷한 정도로 꼽아졌습니다. 첫째는 '척병원이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이고, 둘째는 '척병원에서 수술 않고 주사로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것이 결국 치료의 적중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수술 않고 고칠 수 있는 경우를 수술한다면 잘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예를 들면 단순 디스크환자의 약 80% 정도는 fims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고칠 수 있으며,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환자의 경우 허리를 수술해도 다리 저림이 좋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를 수술 않고 보존치료만 고집해서 치료시기를 놓치고, 돈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어서, 보존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없는데도 몇 개월씩 허리 주사와 한방치료 하면서 고통을 참고 지내는 것 등). 즉, 치료의 적중율은 비록 과학적으로 잴 수는 없는 가상의 숫자이긴 하지만 만약 적중율을 100%로 높이고, 치료할 때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100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2할 5푼을 치는 타자와 3할을 넘게 치는 타자는 큰 차이입니다. 100번 타석 중 25번의 안타와, 100번 타석 중 30번 이상의 안타는 그냥 보면 별 차이가 아닐 수도 있으나, 1점차로 승부가 결정되는 실전에서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꾸준히 3할을 넘게 치는 타자는 특급 타자에 속하여 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척추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할지, 아니면 안하고 고칠 수 있는지 의 결정이 환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적중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환자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척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환자에 대한 컨퍼런스와 교육을 통해서 이 가상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원칙과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지고 꾸준히 소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동료가 척추를 다쳤을 때 '척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권유하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인식이 보편화 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 8월 척병원 원장 장상범



홈커밍데이 이모저모

Home Coming Day

서울 강북을 대표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자리잡은 서울척병원이 어느덧 개원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과 미래라고 생각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척병원은 척추 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수술치료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2007년 내원환자 11,818분 중 10,424분이 비수술치료를 받으셨고, 그 결과로 나타난 높은 비수술치료를 88.7%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께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을 시행하여 그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최소상처방식의 수술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2x2고정술, 연성고정술과 같은 고급 기술과 내시경레이저 시술 등 고난도의 다양한 수술이 모두 가능한 병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은 관절치료의 분야에서도 큰 걸음을 시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관절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관절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뜻 깊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척병원을 선택하셨고, 서울척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경험을 생생하게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공감과 즐거운 감사가 어우러진 2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M 3:00

내빈 접수 및 안내 시작

행사 시작 시간 오후 4시 이지만 2시간 전부터 여수, 의정부, 시흥 등 여러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도착해 주셨습니다. 직원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드리며 방명록 작성과 행사장 가시는길을 도와 드렸습니다.



PM 3:30

관절건강강좌(안준환 원장)

서울척병원은 지난 3월부터 강북지역의 관절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관절치료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추 치료를 받으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관절 질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므로 행사날 관절 건강 강좌를 열었고 높은 호응으로 강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PM 4:00

본식 - 병원장 환영사, 감사 인사 (척추치료의 바른길)



PM 4:20

치료고객 답사 (박자 마리아님), 감사의 선물 증정



PM 4:40

부페 연회

고객 한분 한분 과의 유대감 형성과 퇴원 후 관리를 돕기 위한 커뮤니티 구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당초 5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고객분들로 병원 구석구석은 빼곡히 채워졌고 행사에는 모두 840여명의 퇴원 환자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은 담당 주치의 및 간호사와 즐거운 재회를 나누었고 다음번 홈커밍데이를 기약하며 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원 2주년 척병원 성장스토리



2006. 06. 08.

서울척병원 개원하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6번지에서 의료진 4명,
직원 29명, 36병상으로



2006. 10. 25.

서울대병원 협력병원 협약체결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와 협력병원 협약을 맺다



2006. 06. 08.

장상범원장 청와대 척추강의

청와대 101 경비단 초청 척추건강강의로
청와대의 호평을 받다



2007. 01. 16.

대만 척추학회 회장단 연수방문

서울척병원 국제전문의 수술교육센터
개설 후 세 번째 척추수술교육 시행하다



2007. 04. 02.

척추디스크 전문간병인제도 시행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도 무료로 운영
입원생활을 돕는 전문간병인 제도가 시작되다

story

Seoul Chuk Spine Hospital

지난 2년간 심 없이 달려온 척병원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그 성장의 숨가뻐던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2007. 06. 09.

개원 1주년 기념행사

퇴원환자 초청, 홈커밍데이 행사를 겸하여
서울척병원 개원 1주년 행사를 거행하다.



2007. 12. 14.

노원소방서 공로감사패 증정식

허리질환을 앓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다.



2008. 04. 07.

척추관절 종합치료센터 개소

척추관절의 종합적인 치료를 위하여 5개 클리닉으로
구성된 척추관절치료센터를 열다.



2008. 06. 14.

개원 2주년 기념행사

퇴원환자 초청, 홈커밍데이 행사를 겸하여
서울척병원 개원 2주년 행사를 거행하다.



祝辭

바야흐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점차 도시의 면모가 새롭게 바뀌어 가는 서울 강북지역의 변천사와 21세기 신 의료기술의 발전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척추전문 의료기관인 척병원의 개원 2주년을 삼가 진심으로 감축(感謝)드리며 이 뜻 깊고 영예로운 개원기념일에 즈음하여 존문(摺文)으로나마 감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애하는 척 병원 가족 모든 분들께서 개원 2주년을 자축하면서 화합 단결하여 21세기의 세계 속에 초일류선진병원으로의 성장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한사람으로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내 가족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다해 치료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상범 감동윤 두 대표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료진분들과 관계사무직 등 척병원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애써 오신 노고에 충심(忠心)으로 감사와 경의(敬意)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척병원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두 대표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보니 개원 전 다른 병원에서 무려 15,000명이상의 척추질환 증례를 진단하고 3,000명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치료는 단순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기 보다는 진정 환자를 위한 치료로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라고 써놓으신 말씀을 보며 그야말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온 가정에 행복의 꽃이 시들고 사랑의 향기가 멎어 희망의 꿈까지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보만고건실무용(財寶滿庫健失無用)”이란 말처럼 재물과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인생 오복(壽, 康寧, 富, 攸好德, 考終命)중에 둘째에 해당하는 건강을 지키려면 신체 어느 부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무엇보다 인체의 허리가 우리 몸의 기둥이라 할 수 있으니 척추가 튼튼해야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직업은 인생의 등뼈와 같다”고 했는데 인생에 있어 직업이 없다면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처럼 인체에 있어서도 척추에 병이 난다면 건강유지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토록 인체의 중심축인 척추의 질환에 특화된 장비,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내시경 레이저 수술부터 모든 영역의 척추수술이 가능한 척추전문병원이 강북 최대, 최초로 개원된지 어언 2개성상을 보내면서 무려 19,318명(비수술 16,224명 / 수술치료3,094명)환자를 치료해왔을 뿐만 아니라 평소 허리관리를 잘하여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척추관리에 대한 홍보교육에도 앞장서 오심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 출동벨 소리에 오뎅이처럼 일어나 뛰어어나가는 119대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헤아려 허리와 목 건강관리에 대한 특강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소 절개수술기구 개발을 선도해온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전문의 교육센터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지사들이 연수를 오게 만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척추질환 진료서비스가 있는 병원이 성북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데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기를 놓쳐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근거에 의한 치료를 하면서도 비 수술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환자고객중심의 치료를 실천하는 고객만족의 병원운영방침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민족의 국조이신 단군성조께서 주창하신 홍익인간정신(弘益人間精神)에 입각한 인본주의(人本主義)를 개원이념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정성스런 치료에 의해 신뢰로 다져져가는 “척병원”의 브랜드 가치는 척병원의 가족 분들은 물론 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영원한 정신적 공동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척병원 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과 임직원여러분들께서 의료사업을 통해 이루어가는 인술의 사랑에 꽃이 만발하여 입으로 전하는 길은 향기와 함께 21세기의 신 의료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초일류선진병원의 꿈이 실현되시기를 재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척병원 가족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아울러 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완쾌되어 다행다복(多幸多福)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두서없이 이상으로 축하의 말씀에 거듭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08. 6. 12 城北消防署長 趙南昇

관절염 환자의

여름나기



여름의 날씨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대다수의 관절염 환자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어깨, 다리가 쭈시며 통증이 악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면 습도가 증가하면서 관절 내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관절 내의 활액막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또 체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남게 되면서 부종을 일으켜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정상적인 관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기압의 변화를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기압변동이 있는 날씨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의 관절치료는 매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뼈가 약하거나 무릎과 허리가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질환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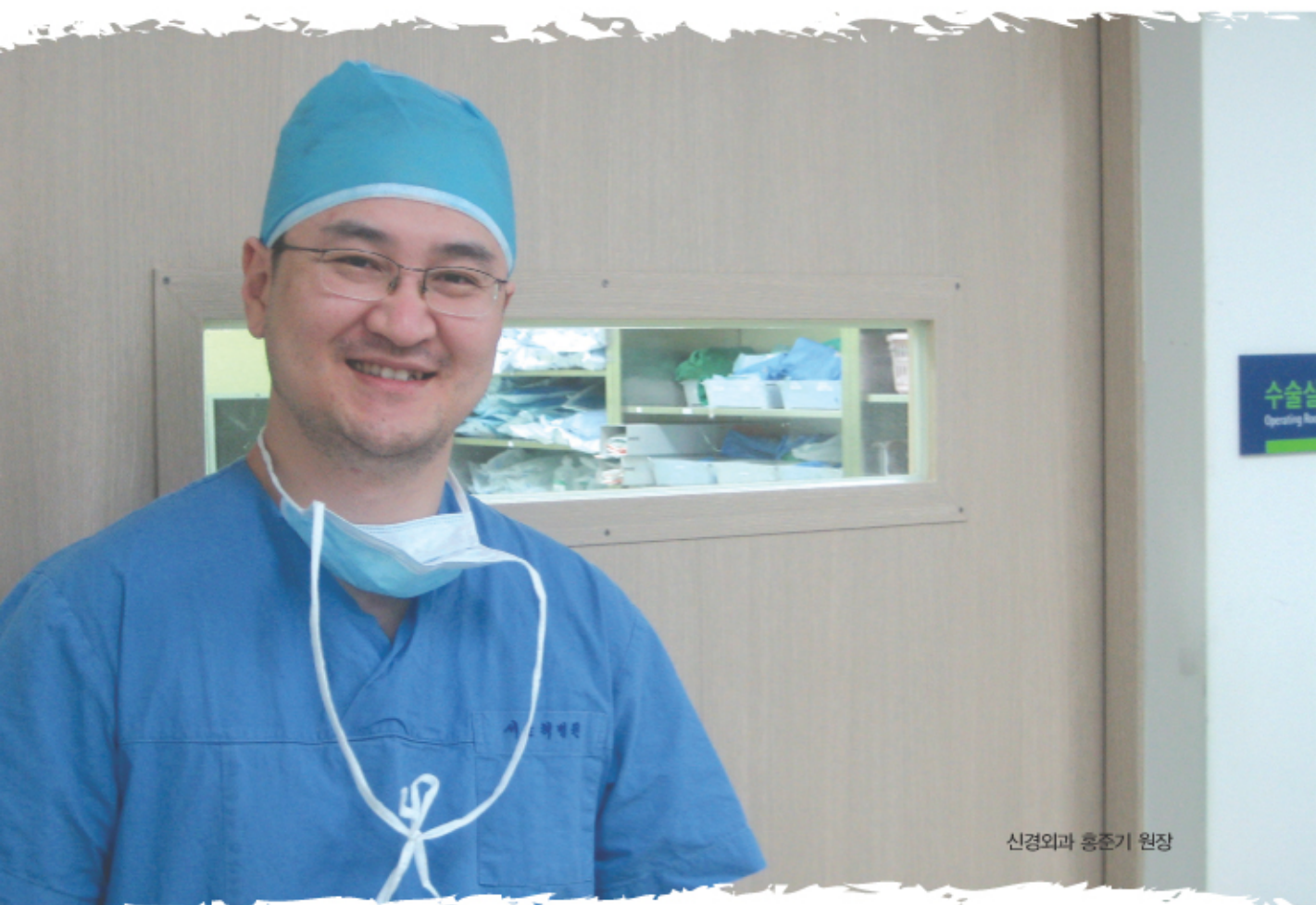
〈관절염 생활수칙〉

1. 80% 이상 되는 습도를 50% 이내로 낮춰주는 것이 좋다.
습도가 높으면 체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남게 되면서 관절에 부종과 통증을 가중시킨다.
2. 실내온도는 섭씨 26~28도 유지, 외부와 온도차이는 5도 이내가 되도록 조절
과도하게 에어컨을 트는 것은 관절통증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쏘면 관절이 더욱 굳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3. 햇빛 강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한다.
4.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다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있다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은 더욱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진다.

※ 관절염에 좋은 실내 운동 : - 수영이나 수중에어로빅
- 팔, 다리, 몸통을 단순히 들어올리는 스트레칭
- 가벼운 아령, 고무밴드, 헬스기구를 이용한 근육운동



-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임의 (인공관절, 관절경)
- 전 국군서울지구병원 청와대의무실 정형외과장
- 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형외과교수
- 현 대한 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현 대한 술관절학회 정회원



신경외과 홍준기 원장

심한 척추관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치료를 2cm 작은 상처의 2x2 고정술

현대사회의 빠르고도 눈부신 성장과 발달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하고 있다. 물밀듯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전자제품등에서 보듯이 기능은 더욱 많아지면서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축소 지향형의 변화는 의료분야에도 각종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 미세화, 정밀화를 발전시켜 예를 들면, 내시경을 이용한 각종 치료 및 수술법 같이 인체의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치료효과는 극대화하고자하는 치료방법등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 침습적 치료법이라한다.

보통 척추수술이라하면 수술후 보행하지못한채 장기간 침상안정을 하거나 수술후 허리를 잘 쓰지못하는 환자를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은 각종 척추 수술기술이나 장비의 발달로 수술시 수

술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고 수술후 재활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과거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 디스크병(수핵탈출증)이 아닌 척추 전,후방 전위증이나 광범위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척추가 심하게 흔들리는 척추불안정증으로 인해 심한 요통이 있는 환자는 비수술적인 보존적치료 등으로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인 방법으로 척추 고정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로서 척추 한분절의 수술을 위해 허리 가운데를 약 8-12cm를 절개하고 후방인대와 뼈를 포함한 근육을 광범위하게 제거, 박리함으로써 수술을 위해 정상 조직을 많이 제거하고 수술시에도 많은 출혈이 있을수 있으며, 수술시 신경조직 견인을 많이 하게되어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고, 수술후에도 광범위한 수술상처나 척추주위 근육위축으로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는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추체간 유합술에 최소 침습적 치료술을 적용한 것이 추간공 경유 추체간 유합술인데, 직경 2.2cm의 미세 원통형 견인기(METRx)를 이용해서 척추 사이 추간공부위를 통해 근육을 벌려서 수술 하므로써 수술적 접근과 관련된 인대, 뼈,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늘려진 신경 조직에 대한 압박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술중 인조뼈(cage)삽입을 위한 신경조직 견인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신경조직 손상의 위험이 거의 없고, 수술로 인한 출혈도 기존 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의 20-30%에 불과하여 수혈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은 신경견인과 이로 인한 신경손상의 우려 때문에 요추3번이상의 상부요추에서 시행하는데는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신경견인이 거의 필요없는 추간공 경유 추체간 유합술은 상부요추에서도 시술이 용이하다. 또한 최소 침습적 수술이므로 수술후 발생하게되는 조직유착과 반흔형성도 최소화할수 있으며 특히, 기존 수술로 인해 척추관이나 신경주위 유착이 있는환자가 추체간 유합술을 받아야할경우 신경조직손상이나 경막(신경조직을 싸고있는 막)열상등의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추간공경유 추체간 유합술은 일반수술로 유착이 거의 없는 추간공부위를 통해 수술하게되므로 재수술시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시행할수 있다. 이처럼 수술과 관련된 상처가 최소화됨으로써 수술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도 보다 적고 수술흉터도 동전 크기 정도 밖에 안되므로 미용상의 잇점도 있고 수술후 상처부위의 불편감도 현저히 적어 보다 빠른 재활과 일상 및 사회 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비수술적 보존적치료(약물,운동 및 물리치료등)에도 좋아지지않는 허리 또는 동반된 하지통증등을 수술로써 모두 없앨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의 진단하에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처럼 추간공경유 추체간 유합술은 기존의 후방경유 유합술의 수술적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수술과 관련된 조직손상이나 합병증등은 최소화할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하지만 질병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기치않게 찾아온다. 그러나 척추질환은 상당부분 바른자세유지나 꾸준한 운동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자칫 소홀히 할수 있는것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진료실에서 만나게될 아픈 환자들이 줄어들기를 기원한다.

나의 척병원 생활

정형외과 김주현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척병원에 입사한지도 이제 석달 가까이가 지났다. 어색한 환경에서 새로움을 익히는 것이 이제는 어느정도 여유로워진다. 석달전 첫출근... 서울척병원이 나에게 준 첫인상은 '도심속의 여유'였다. 병원앞 도로를 가득메운 출근차량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 하루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한국의 수도, 서울의 아침 모습이다. 이런 활기찬 도시의 아침을 느끼며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연구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때, 나의 코끝을 자극하는 커피향은 바깥엔 아침 출근길에 잠시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일까 나에게 척추전문병원인 서울척병원이라는 곳은 처음이라는 두려움보단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처음이라는 어색함이 내 생활의 일부에서 떨어져나갔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척병원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간다. 연일 수은주가 30도를 넘게 가리키는 7월의 어느 날... 더위를 피해 산, 계곡,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지는 때이다. 개인적으로 바다보다는 산이 좋고 등산보다는 계곡에서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쉬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휴가때도 그러고 싶었지만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다녀왔다. 시즌을 피해서 그런지 오가며 길이 막히진 않았다. 하지만

휴가철이면 늘 나오는 애기가 휴가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아닐까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유럽의 프랑스에 서도

휴가철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리를 고안했다고 한다.

프랑스 남부의 산악도시 밀라우에는 구름위에 떠있는 다리가 있는데 세계 최고 높이의 '미요(Millau) 다리'가 그 주인공이다. 다리 아래로 구름이 보이는 이 다리는 교각의 높이가 무려 343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파리의 에펠탑보다 23미터가 더 높은, 말 그대로 '구름다리'인 것이다. 다리 이름인 미요는 이 다리가 지나가는 마을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세계최고의 이 다리는 '최고'라는 수식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것이다.

척추질환치료에 최고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서울척병원에도 구름다리가 있다. A동 3층과 B동 3층을 잇는 이 다리에는 매일 수백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나도 하루에도 몇번씩을 이 다리를 건너 다닌다. 무심코 건너다니던 이 다리에 어느 날인가 문득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다. "완쾌로 가는 구름다리..."?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괜한 어색함과 쑥스러움으로 다가왔지만 글썽? 나름대로 의미있는 이름이 아닐까 한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한구절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고 했다. 그냥 건너면 되는 다리지만 그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해 질수 있는 다리라면 이름을 붙여 불러주고 싶다. 또한 이 구름다리를 건너는 환자분들에겐 낯선다는 희망을 갖게하고, 다리를 건너는 직원들과 의료인들 모두 에겐 환자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이름 자체로도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척추질환 환자들은 대개가 만성적 고통에 시달리게되고 그 아픔이 자연히 외부로 배어나오길 마련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다. 그런 분들이 서울척병원의 구름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 이전의 환한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에게 다시금 일깨운다. 전국에서 환자 완쾌의 최고의 구름다리를 가진 병원인 서울척병원에서 오늘도 척추전문의로써 사명을 갖고 환자진료에 임하자고...



외래일지

정은경 간호사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여름이 느껴지게 하는 날씨다. 덥고 습한 공기를 가르며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 길가를 장식한 풍성한 나뭇잎들 그리고.. 맑게 개인 하늘이 오늘도 즐거운 출근 길을 시작하게 한다. 출근후 가장 처음 하는일은 아침 회의 참석이다. 12명의 의사와 상담 간호사 전문간호사 수술실간호사등 모두 모여환자 한명.. 한명의 차트를 보고 증상을 되짚고 MRI x-ray등 각종 검사 자료를 참고하여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찾는 시간이다. 아침 회의를 참석하며.. 또 외래 근무를 하며 안타까운 환자를 접할때가 참 많다. 오늘은 그 안타까웠던 환자들 중 한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고 협착증도 심해 수술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위에서 수술하면 장애인인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수술을 거부하고 이곳 저곳에서 침을 맞고 보존치료를 받으셨다했다. 어느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수술치료 우선 선택병원이란 글을 보고 내원 하셨다 했다. 다리도 많이 절며 제대로 보행이 되지 않고 통증도 심한 상태였다. 다른 병원 MRI촬영 당시와 증상변화를 보여 재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미 신경을 너무 많이 압박하고 있어 수술 외엔 방법이 없고 신경이 오래 눌려 수술후 회복과 정도 더딜꺼란결과를 접하셨다. 조금만더 빨리 수술을 결정 했다면 그렇게 아픈시간을 덜보냈을텐데.. 조금더 회복이 빨랐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다. 우리 병원은 비수술치료를 우선 선택하고자 하는 병원이다. 하지만이말이 수술이 꼭 필요한데 불구하고 비수술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척추는 겹으로 드러난 곳이 아니기에 우린 똑같이 허리가 아프다 말해도 각자 허리안에 여러군데의 디스크중 어느부위 파열, 혹은 팽윤, 변성증협착증등 아픈 부위는 다르다.

무조건 허리 수술은 나쁘다 침이나 주사치료만 해야겠다 주위에서 이러더라가 아니라 그 아픈 부위, 정도를 검사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른 올바른 방법을 선택 즉 비수술치료 혹은 수술치료를 결정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서 말했던 환자분이 혼자 겪은 아팠던 시간들을 보상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우리 병원에 내원해 본인의 병이 침만으로 해결될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수술 방법, 예후등 을 자세히 상담받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수 있게 되어 감사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희망해본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를 제시할수 있는 전문병원을 만나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로 마음 까지상처 받게 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 서울척병원에서는 최고의 의술로 척추디스크관절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과기록을 통해 성공치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허리디스크탈출증 : 현미경레이저디스크수술

- 39세 남자 / 노원구 공릉동 거주
- 진단명 :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수술명 : 제5번요추-제1번천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 수술전 증상 : 한달전 갑자기 상기증상있어 물리치료 및 침치료 했으나 1~2주전 갑자기 증상심해져서 내원함,허리,좌측 엉치~허벅지뒤~발까지 저리고 아픔, 걸으면 엉치통증 심해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 뻣뻣하면서 특히, 아침 세면시 서있으면 다리가 심하게 저리며 오히려 잠잘때는 편하다.



수술 전 MRI



수술 후 MRI

- 치료경과
- [퇴원일]
약간 저림증상이 잔재 하지만, 몸이 편안하다.
- [수술 후 한달]
점차 나아지며 통증이 모두 없어졌다

2

목디스크탈출증 : 목인공디스크치환술

- 55세 남자 / 경기 의정부 거주
- 진단명 :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수술명 : 제5-6번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 수술전 증상 : 목의 통증과 오른쪽 어깨가 아픔



수술 전 MRI



수술 후 X-Ray

- 치료경과
- [퇴원일]
수술 후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 한걸 편하다
- [수술 후 한달]
통증은 거의 없고 경과 좋다

3

허리디스크탈출증 : 현미경레이저디스크수술+연성고정술

- 30세 남자 / 성북구 정릉동
- **진단명** : 제4-5번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과다전만증
- **수술명** : 제4-5번요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및 극돌기간 삽입술
- **수술전 증상** : 허리,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통증 약 4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증상 심해짐 물리치료, 한방치료 받은 후 다소 호전 되지만 항상 재발 본원 FIMS 치료 시도 후 통증 50%감소되어 2주정도 정상생활 하였으나 통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수술 결심



수술 전 MRI



수술 후 MRI

● 치료경과

[퇴원일]

왼쪽 다리 옆 저린감은 약간 잔재하지만 모든 통증 사라짐

[수술 후 2달째]

운동하면서 지내고 경과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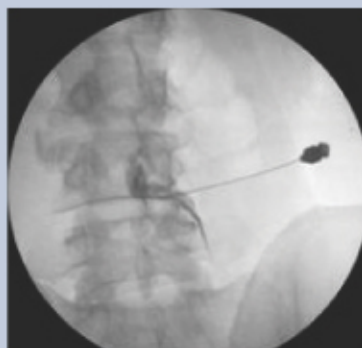
4

허리디스크탈출증 비수술치료 : FIMS

- 39세 남자 / 고양시 일산 동구
- **진단명** : 제4-5번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치료명** : 비수술치료 FIMS 요추4-5번간 오른쪽1차 시행
- **치료전 증상** : 앉아 있으면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음. 2주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다리통증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 후 검사하여 디스크 진단받음



MRI 검사 이미지 중단면
요추4-5번 디스크탈출증



FIMS 시행
(실시간 투시영상 C-arm 이미지)

● 치료경과

[치료일]

허리가 우러난 감이 있지만 불편함 없이 걸어서 귀가함

[치료 후 보름]

다리의 증상이 사라지고, 평소 못하던 복싱을 다시 시작해도 될만큼 경과가 좋다

- 성별 : 여
- 나이 : 64
- 직업 : 주부
- 질환명 : 목디스크
- 최초증상

저는 2006년 3월쯤 갑자기 팔이 저리도록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X-ray부터 찍어 보자고 하더니 결과로 팔에 근육이 뭉쳐 물리치료를 매일 하면서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견딜수없이 아파왔습니다. 20일정도 치료를 받다가 의사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왜? 낫지를 않고 갈수록 더 아프냐구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20일밖에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사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병원은 그만 와야겠다 하고선 동네가정의학과를 갔더니 역시 근육이 뭉쳐서 그러니 약을 먹으면서 주사를 맞아보자고 하기에 일주일을 다녔으나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의원을 갔습니다. 역시 근육이 뭉쳤다고 하면서 팔에다 침을 놓고 약을 먹기 시작

일주일 :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얼음으로 통증부위에 찜질을 하면서 지내다 병원에 갔더니 촬영을 해보더니 근육밀에 염증이 생겼으니 여기 병원은 너무 멀고 동네에 재활의학과를 찾아 가라고 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활의학과를 검색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달을 다니면서 갈수록 심한 통증에 견딜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호소를 했더니 마취주사에다 신경침까지 놓아드렸는데 갈수록 더 아프다고 하니 알수가 없다면서 내일부터 재활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하기에 아 이젠 아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하던중 우리 큰아들이 엄마! 강남에 마디병원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한번 가봅시다. 그러기에 아침 일찍 두달동안 강북을 헤메다가 강남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곳에서 상담을 하고 X-ray를 찍자고 하더니 목에 석회질이 너무 많이 끼어서 대수술을 해야겠으니 우리병원에는 MRI가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서 찍어 오십시오 하기에 아들과 그병원을 나와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MRI를 찍으러 갔더니 두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기에 눈앞이 캄캄하고 아픈팔은 두달이 넘더니 손등이 약간의 마비증세와 함께 가렵기 시작했을때였습니다. 실망과 좌절속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목디스크질환 완쾌인터뷰



아들이 :

엄마 미아리고개에 “척병원”이 생긴지 보름정도 되었다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전부 우리들병원의 박사님 두분이 병원을 차렸더니 가는길목이니 한번가봅시다 하기에 내가 콧웃음을 쳤어요 애! 강북에 차린병원이 오직하겠니 내일 다른병원에 가보자 했더니 속는셈치고 가봅시다 하기에 마지못해 승낙하고 척병원을 들어섰더니 안내원과 사무원의 친절함, 보름밖에 되지 않아서 분위기도 한산했지만 웬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편안함을 느껴집을 느꼈습니다.

난 :

어떤 박사님이 유명하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사무원 언니의 배려로 “김동윤” 박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의 증세를 말하자 :

대뜸 MRI를 내려가서 찍어오라기에 이런 개인병원에도 MRI가 있냐구 질문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다되어있습니다. 하는 순간 웬지모를 확신이 마음에 닿아 왔습니다. 아! 이병원에서는 고칠수 있겠구나 사진을 찍고 30분쯤 기다렸을까? 이름을 호명하기에 들어갔더니 김동윤박사님께서 목디스크입니다. 하는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곳을 넘는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목디스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고

난 :

내 주변에서 목디스크를 수술한 사람은 본적도 없고 들은적도 없기에 너무기가 막혀서 3개월 동안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시간, 돈,통증을 버린 것이 억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

신앙인으로써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병원이 강북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감사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절차를 밟고 3일째 되는날 4시간이라는 긴 수술시간을 지나서 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항시 겸손하시고 듬직한 김박사님 친절한 박과장님 작은 말에도 귀기울여 주시고 박과장님과 간호사 언니들..그 고마움속에 5일만에 퇴원하고선 독에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로 2주만 목보호대를 하면 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의 아픔을 웃으며 바꿔주신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들 내가 척병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홍보대사가되어야겠다 각오하고선 누가 팔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 소리 듣기만 하면 설득해서 제가 척병원에 보낸 환자만 저희 남편도 홍보대사로 자칭 약 60명 정도 됩니다. 모두가 수술마치고선 좋은 병원 소개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수없이 받으면서 아픔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박사님들 재발이 없는 병원 “척병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면서 무한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서울척병원 보도자료

퇴원 환자 840명 다시 모인 이유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서울척병원. 80 병상 규모의, 크지 않은 '봉네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병원의 좁은 복도와 로비에는 백발 노인부터 젊은 여성까지 서로 웃고 떠드는 소리로 위자였다. 병원 측이 개원 2주년을 맞아 이

곳에서 수술 받고 퇴원한 환자를 초대한 '홈 커밍 데이(Home Coming Day) 행사', 모두 840여명의 퇴원 환자가 이 '잔치'에 참여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와의 유대감 형성과 퇴원 후 관리를 돕기 위해 잔치를 기획했다"며 "당초 500명 정도 모



서울척병원 홈 커밍 데이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퇴원 환자들이 모였다.

홍진호 헬스조선 PD

일 것으로 예상하고 초청장을 돌렸는데 1000명이 넘는 분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이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4시. 그러나 2시간 전부터 여수, 의정부, 시흥 등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환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는 한편, 낯익은 의사·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요즘 자꾸 허리가 아프다" "있었다 일어서기가 어렵다"며 건강 상담을 하기도 했다. 임시 행사장으로 꾸민 주차장에 지리가 부족해 늦게 온 사람은 3층과 5층 진료실과 복도 등에서 행사를 지켜보아 왔다. 시흥에서 온 문 모(55)씨는 "작년에 동생하고 함께 이 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그때 같이 입원했던 친구들을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일산에서 온 김경근(60)씨는 "2006년에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결과가 좋아 퇴원 후 한 번

오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며 "주치의 선생님도 다시 한번 뵙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개인 병원에서 퇴원 환자들을 모두 초청해 한바탕 축하한 '잔치'를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이 병원 김동원 원장은 "캐나다의 한 탈장전문 병원에서 매년 퇴원 환자를 초청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병원이 환자들을 평생 관리해준다는 개념으로 퇴원 환자들이 병원과 쉽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특히 허추 질환은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절 등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들을 고무하고 최신 정보도 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참석한 환자들은 건강 강화를 돕고 비파괴적으로 자란 저체식사를 한 뒤 헤어졌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ks@chosun.com

직장인 어깨 통증, 벌써 오십견이?

고정된 자세로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깨 근육이나 인대가 과도하게 긴장,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직장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어깨 통증이다. 어깨는 신체 관절 중 무릎과 함께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속하기 때문에 연골과 근육, 인대 등에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 무릎 관절에 비해 지지하는 근육이 나 인대가 약해 퇴행성 변화로 인한 통증도 빨리 나타난다.

직장인의 어깨 관절의 부담을 늘리고 퇴행성 변화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올바른 자세로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볼 때는 주로 등을 움크린 채 어깨와 팔이 몸 전체를 지탱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다.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깨 근육이나 인대가 과도하게 긴장돼 통증과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고 오십견 유발을 부추긴다.

최근에는 30대에도 나타난다 하여 삼십견이라고도 불리는 오십견의 증상은 어깨가 뻣뻣하게 아프고 팔이 잘 움직이지 않으며 어깨를 움직여 할 때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되도록 10분 정도는 팔과 어깨 근육을 펴거나 틀러 어깨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간혹 거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풍이 심할 경우 물리·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테니스 등 반복적인 어깨 운동, 배벌 등 어깨를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은 오십견과 비슷하지만 특정 동작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이는 힘줄을 잇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깨 관절의 경우 비슷한 증상이라도 다르게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목디스크처럼 어깨 문제가 아니라더라도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많다. 따라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조선일보/퇴원 환자 840명 다시 모인 이유는?

[뉴스메이커] 직장인 어깨 통증, 벌써 오십견이?/경향신문▶

척병원 가족의 여름인사



심사과 - 김희경 과장

굵은 장맛비가 연일 쏟아져 몸과마음이 눅눅함으로 시작되는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이장마가 그치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잠깐동안의 여름휴가를 생각
하며 찌프린 마음 내려 버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척병원 가족모두가 푸른바다에
고래 한마리씩을 키우고 돌아오는 여름이길...



원무과 - 최인선 사원

"한여름 찜통더위에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힘드시죠?
아픈 여름을 날려버릴 화사한 미소와 친절로 고객분들의 더위를 썩~! 씻겨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치료실 - 이순규 실장

수술 후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십
니다. 하지만 정작 과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은 간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프신 곳을 박박 시원하게 긁어
드리는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학과 - 신영준 실장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들로...
환자의 병을 가장 정확하게 찾아 낼 수 있는 영상의학과로..
환자의 마음의 병까지 알아챌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2회 서울척병원 홈커밍데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쾌해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천 여석의 자리를 빠짐없이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척추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즐거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Thank You!



Seoul Chuk Spine Hospital
서울척병원
척추디스크 무릎관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척추관절치료를 하겠습니다
척추관절 환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비수술치료 · 내시경 레이저수술 · 현미경레이저수술 · 연성고절술 · 2x2고정술 · 인공관절



서울척병원관절치료센터

서울척병원 관절치료센터는 무릎관절과 척추 디스크의 종합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여 척추 및 관절치료에 뛰어난 의료진과 최신의 치료시설을 갖춘 강북 관절치료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진료과목 : 정형외과 (무릎, 어깨관절)
- 주요시술 : 인공관절, 관절경
- 특 징 :
 - 무릎관절 전문
 -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의 종합적 치료
 - 주요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치료
(여성전용 인공관절 시술)
 -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최신식 첨단치료시설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예약 및 상담문의 : 02) 940-2000